

AGI 시대의 AI 인재 양성

성균관대학교 이지형

차 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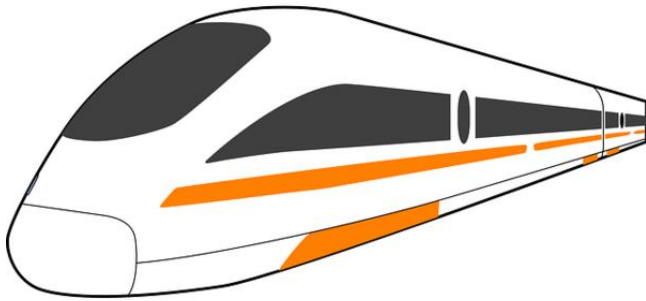
1. 누가 AI 인재인가?
2. AI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?
3. AI+X는 누가 하나?
4. 맺음말

1. 누가 AI 인재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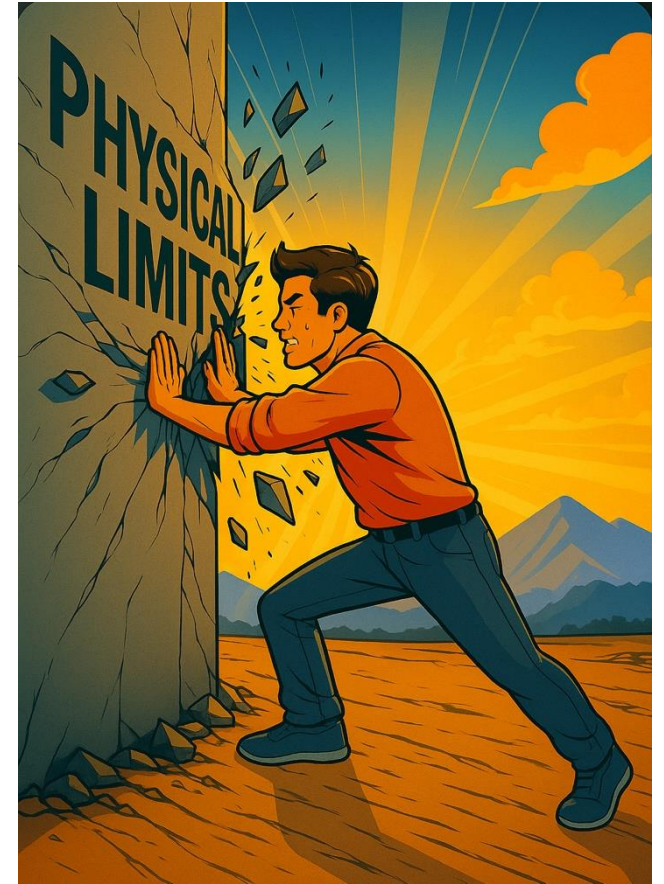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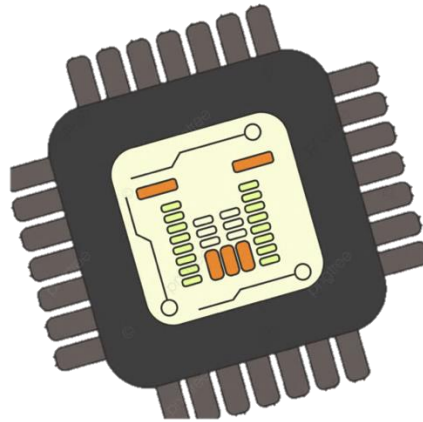
AI는 다른 분야와 다르다

- 물리적 한계에 도전하는 영역

빠른 이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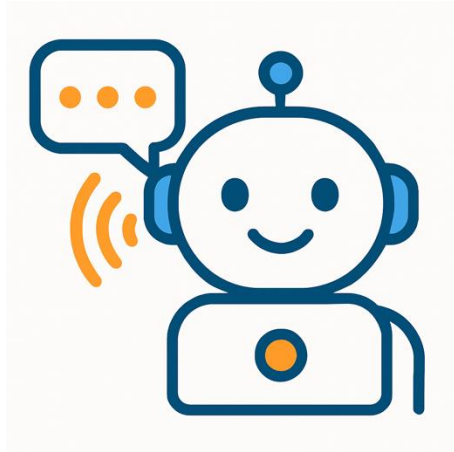
더 작은 반도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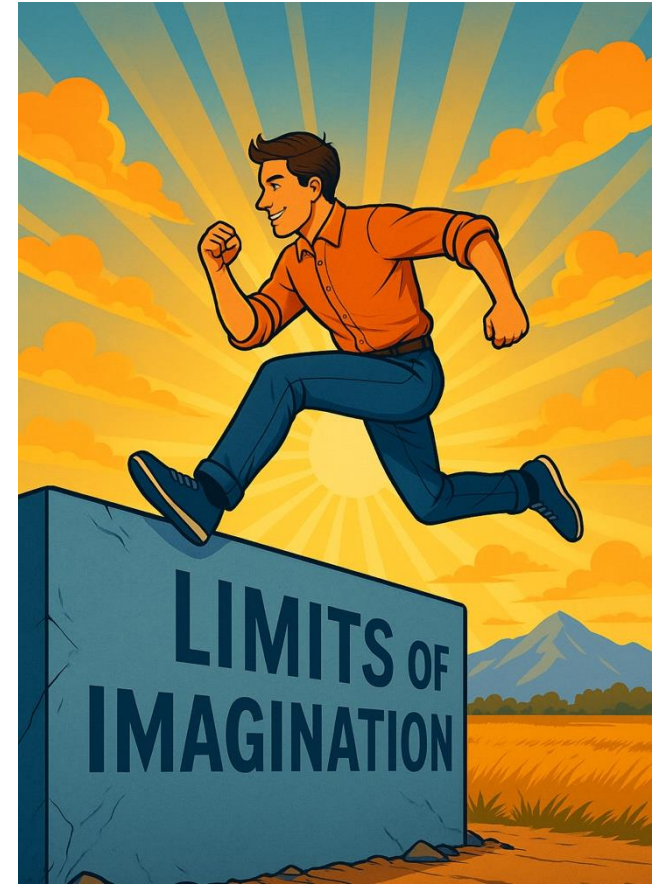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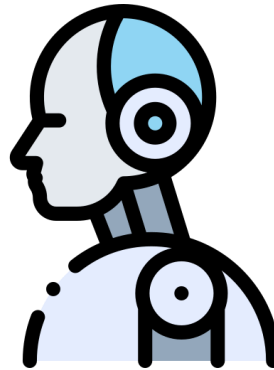
AI는 다른 분야와 다르다

- 인간 상상의 한계에 도전하는 영역

말을 이해하는 기계



나를 돕는 로봇



AI는 창의/도전/혁신이며, 그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.

지금 AI 발전은 무엇이 주도하는가?

데이터 vs 기술 vs 자본

- 기술 주도하면 차라리 쉬움
- 데이터와 자본 -> **인재 + Value Chain 확립 필요**

AI는 창의/도전/혁신이며, 그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.

AI인재란?

Group	설명	역할
Group 1	AI 자체의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	AI핵심 인재
Group 2	높은 AI 역량으로 AI 기술을 개선하여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	
Group 3	개발된 AI 기술 및 도구를 바탕으로 X-분야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	
Group 4	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업 X분야의 어느 부분이 AI로 해결 가능한지 파악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	AI확산 인재
Group 5	개발된 AI 도구를 현업 X-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	

AI인재란?

Group	설명	역할
Group 1	- 교육으로만 충분하지 않음 - 인프라와 환경이 중요 - 양성보다 확보 관점에서 접근 필요	AI 핵심 인재
Group 2		
Group 3		
Group 4	- 현 교육 환경 및 체계에서 양성 가능 - AI+X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- 교사/강사, 교육환경, 기업의 역량 부족	AI 확산 인재
Group 5		

2. AI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

인재확보 전략

- **국가차원 범부처 통합 AI인재 위원회 (국가AI전략위원회)**
 - 교육부, 과기정통부, 산자부, 중기벤처부, 고용노동부의 각프로그램을 통합적 차원에서 재검토
- **파편화된 대책들 -> 통합적 유기적**
 - 인재의 성장 주기를 고려한
 - 기업과 인재를 동시에 고려한
 - 기존: 산업별, 인력수요별 파편적 계획

AI핵심인재 확보 전략

- 국가의 **진심**을 보여 주는 상징적 프로그램 필요
- **Flagship 인력 확보 프로그램: 국가AI연구자 등**
 - 공모가 아닌 선정위원회에서 선발: 명예 + 지원
 - 국내외 젊은 연구자 대상, 연구인프라 & 연구비 장기 대규모 지원
 - "우리도 너희에게 관심 많다"
- **Flagship 연구 프로그램**
 - 세계적 기술 개발 목표
 - 예: 앨런튜링 연구소 (영국), Vector, MILA, AMII 연구소 (캐나다)
 - "우리도 세계적 기술 개발 하고 있다"

AI핵심인재 확보 전략

- 인공지능대학원, BK 사업예산 대폭 증액
- 학부+대학원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
- 신진 핵심인재 유지를 위한: Flagship 프로그램
- 국내에 남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?
- 외국 우수 학생 적극 유치

AI확산인재 확보 전략

- 다양한 산업/지역 별 AI 확산 인재확보 프로그램
- 재직자 대상 고급인재양성 프로그램
 - 재직자 + 기업 동시 지원 -> AI 적용 성과 제시
- 재직자 + 기업 패키지 교육 지원 + AI 적용 프로그램
- 인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
 - 기업 디지털전환 지원
- 학부 AI 교육 강화

AI Value Chain 구축 전략

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자: 남아 있을 이유, 들어 올 이유를 제공

- **인재가 왜 나갈까? 외국이 더 재미있으니까**
 - 더 재미있는 연구주제가 있고, 더 재미있는 회사가 있고
- **인센티브를 주자**
 - 병역특례, 국가적 지원, 국가적 인프라 지원
- **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환경**
 - 투자, 성장, 글로벌 진출

AI Value Chain 구축 전략

선순환 구조 확립

- 데이터, 자본 -> 인재 -> 기업 -> 시장
- 공공에서 마중물을
 - 공공에서 AI 서비스 개발
 - 기업에게는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 권한 제공
 - AI 적용자에 대한 승진/평가 시 인센티브



AI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

3. AI+X는 누가 하나?

AI+X 융합은 누가하나?

AI사람이 X배우기가 쉽고 효율적이다

VS

X사람이 AI를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

화성에서 온 AI 사람, 금성에서 온 X 사람

- **AI 사람**

- 문제를 모름. 데이터의 특성을 모름
-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 중요한 점인지 모름
- AI는 알아도 문제를 AI로 formulation하지 못함

- **X 사람**

- AI 기술의 특성을 모름
- AI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름
- 도메인은 알아도 문제를 AI로 formulation하지 못함

(AI 사람) + X == AI + (X 사람) 인가?

- **AI 사람**

- 도메인 모두 알 필요 없음
- 그러나, 주어진 데이터를 이해하고, 해결해야 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함

- **X 사람**

- AI 기술 자체를 알 필요는 없음
- 그러나 AI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AI 관점에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

AI+X 융합은 누가하나?

- "X를 배운 AI 사람"과 "AI를 배운 X사람"이 함께 해야 함
- 두 사람의 지식과 역할은 다르며, AI+X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사람 모두 필요함

4. 맺음말

맺음말

- AI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/도전/혁신의 가치 생태계 필요
- 정부 정책에서도 창의/도전/혁신
- $[(AI\text{사람}) + X] \neq [AI + (X\text{사람})]$